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충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순근

## '96 부활절

## 다시 사신 구세주 항상 섬기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마 28:6, 7)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이다. 금년에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간에 김덕신 목사(대구 동부교회 담임)를 강사로 모시고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에는 한국 초연의 '마가에 의한 그리스도 수난곡'을 실로암찬양대가 연주하며 하나님께 음악예배로 영광을 돌렸다.

부활절인 오늘은 새벽부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고, I, II, III, IV부예배와 찬양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특별히 I, II, III, IV부예배에는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린다.

한편 각부서에서는 부서별로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 찬송가 경연대회, 부활절 글짓기, 그림그리기, 부활절 성극 공연 등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시금석이다.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를 낳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절기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와 여타 인물들이 살아난 것처럼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셨다(롬 6:9-10; 벰전 1:21).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첫 열매이며, 미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며,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전 15:20; 살전 4:14).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인가? 바로 부활절이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권세들

이 깨어져 나가고, 사망, 저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활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단순히 교회행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부활의 축제를 가지며, 민족적인 부활절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5교구

## 다채로운 부활주일 행사

제5교구(교구장 박승준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에서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교구모임 시간에 특별 순서를 갖는다.

수화 찬양과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 그리고 '신비한 거울'이라는 제목의 성경극을 준비하였다.

교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교구 식구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 이달의 행사 -

|       |              |
|-------|--------------|
| 1일-6일 | 고난주간         |
| 1일-5일 | 고난주간 전교인 금식  |
|       | 특별부흥사경회      |
| 5일    | 고난주간 음악예배    |
| 7일    | 부활주일         |
| 10일   | 정기당회         |
| 11일   | 학습 및 세례 예비문답 |
| 12일   | 제2차 세례식      |
| 19일   | 에바다부 수화찬양    |
| 21일   | 장애인지주일       |

## 제2차 세례식

4월 12일(금) 저녁, 갈릴리홀에서

96년도 제2차 세례식이 오는 4월 12일(금) 저녁 7시에 갈릴리홀에서 거행되며, 이를 위한 예비교육과 문답이 11일(목) 저녁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4월 7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 24시간 연속기도회

4월 6일(토) 정오부터 4월 11일(목) 정오까지 제10교구,  
4월 11일(목) 정오부터 4월 16일(화) 정오까지 제11교구가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마쳐

지난 주간 중에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참석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본당에서 개최되었던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사진)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성료되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에 목말라 하던 성도들은 말씀으로, 찬송과 기도로 거듭나기 위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였다.

매 집회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가진 찬양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회에 임할 수 있었고, 강사 김덕신 목사의 폭포수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의 습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우리 뒤편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진실되게 동참할 것을 결심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에서도 이번 부흥사경회를 위해 이미 1개월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힘을 쏟았다.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세 차례씩 모인 집회마다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번 부흥사경회는 매 시간마다 큰 은혜가 넘쳤다.

교회에서는 모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숙소와 식사를 제공, 매일 100여명의 성도가 교회에서 밤을 자며 참석했



다. 또한 직장인들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하

고 출근하는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다.





충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부활절 설교 ●

# 예수님의 부활

(요 20:11-23)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걸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 1.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땅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시간부터 "나는 길가는 나그네니" 죽음 정거장을 향해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죽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풍랑조차 복종케 하시는" 자연까지 복종시킨 권세 능력 무한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이 길이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신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돈 때문에 선생을 팔아먹는 회개할 줄 모르는 악독한 유다를 거쳐서 이 모양 저 모양 악하고 더럽고 못난 죄인들에게 잡혀서 다섯 곳에서 재판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살인장도들, 반역자도들이나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어 죽으셨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억만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로 생명을 주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악마의 손에서 빼앗아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 일이 다 성공되실 때에 친구약경이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영광스런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자칭 애국자, 자칭 정통파, 바리새인들, 타락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인간 지식이 최고로 앞섰다고 자랑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돈에 눈이 어둡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던 가롯 유다, 헤롯당,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의 민족을 팔아 먹던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협력을 했습니다.

저들은 선한 일에는 말만 하고 싸우더니 악한 일에는 말도 없이 잘합니다. 오, 악마의 졸도들이여!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 2.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를 위해 파놓은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악한 제사장 무

리의 명령을 따라 무덤 앞에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 놓았습니다. 개미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다 봉하고 도장을 꼭꼭 찍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도장찍은 종이를 뜯으면 알지?" 그러면서 로마 병정들이 창을 비켜들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한 지 사흘만에 무덤에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가로막았던 크나큰 돌을 굴러보냅니다. 그 뿔내던 로마 군인들이 '왜, 그래?' 하는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장례한 지 사흘만에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어 시신을 찢던 수의를 차곡차곡 개어놓으시고, 머리를 찢던 수건을 차곡차곡 개어놓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나오셨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무덤을 자랑하고, 모하메드의 제자들은 모하메드의 무덤을 참배하려 모여들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부족한 종도 예수님의 무덤,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 몸은 우리의 완전히 똑같은 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생생 구운 것을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우리와 아주 똑같은데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쿵쿵쿵 문 열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평안하라"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신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니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좌악 찢어져 하늘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느니,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았고 너희들 하늘 가는 길을 내가 직접 열어놓았으니, 너희들 하늘에서 영생할 것을 증명한다" 하시는 우리를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성도여! 우리는 천대에 영생할 친구입니다.

## 3.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으시어 젖먹이고 키워주신 성모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의 열두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요한 사도입

니?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본래 일곱 귀신이 들었던 미치광이였습니다.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내 맘에 임하여 오시니 변하여 새사람 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새사람 된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던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장례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든가 다시 한번 향유를 부어보는 정성을 다하고자 가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만에,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오늘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무덤, 무서운 곳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곳입니다. 힘이 없는 여자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갔더니 이게 웬 일입니까? 로마 병정도 없고,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도 없어졌고, 무덤을 들여다보니 텅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장 돌아서서 달음질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는 "어떻게 된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근심과 의심과 회의 속에서 돌아갔을 때도 마리아는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마치 엄마 잃어버린 어린애처럼 주저앉아 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정성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무덤밖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태양의 빛 비쳐오니 어둠 슬픔은 삼시간에 도망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리칩니다. "랍비여!"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한걸음에 달려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의심하면서 무덤은 비었지, 살아났다고 그러지,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지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에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슴속에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영의 눈을 번쩍 띄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뵙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의 재림이 불원하니" 오늘 지구덩어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예수의 재림이 문밖에 임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들 눈 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통파만 자랑하는 타락한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인간 지식이나 앞세우는 사두개파도 되지 맙시다. 권세자의 앞잡이가 되는 헤롯당도 되지 맙시다. 돈에 양심팔아먹는 가롯유다도 되지 맙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복된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달음질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꿈에도 잊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면서 선한 싸움 싸우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천국이 꽃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재건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휴전선도 북으로 무너져 금수강산이 하나님의 제단되고, 남북의 칠천만 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백성이 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너도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은혜의 새출발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부활의 꽃씨를 심으며 \*



#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 교회는 부활의 씨앗을 기다림 —

박 경 한

(목사, 찬양위원회 · 제12교구 지도)

**몇** 주 전부터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재동 꽃시장이라도 나가서 꽃씨를 사다가 화분에 심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4월이 오면 우리는 화단이나 화분에 꽃씨를 심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봉지 겉면마다 울긋불긋한 꽃의 사진이 붙어 있고 뒷면에는 꽃을 심고 가꾸는 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겉면으로 만지면 큰 씨앗은 한두 개 들어 있고 작은 씨앗들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 아이들은 꽃씨를 심는 것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식목일이 되면 꽃씨를 심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곤 합니다. 꽃씨를 심으면 움이 돋고, 싹이 나며, 파아란 새싹 속에 생명의 경이를 느낄 것이라 저도 내심 즐거워하며 기다려집니다.

왜 우리는 겨우내 혹은 몇 년이 지나 말라버린 꽃씨에서 화사하고 빛깔 고운 꽃을 연상하고 기대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뻔뻔 말라버린 꽃씨 한 알 한 알에서 우리는 조롱박도 기대하고, 금잔화도 기대하며, 나팔꽃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꽃이 생명을 이루는 흙과 단절된 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혀 의심치 않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만 말라버리기만한 단단한 꽃씨의 겉질 안에는 죽지 않은 생명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정량의 흙 속에서 물과 햇빛과 따뜻한 기온만 주어진다면 활개치고 겹질을 깨고 나올 생명의 힘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부활도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는 분명한, 생명의 힘이 있었기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은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나누어 심겨졌기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더욱 힘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꽃은 살아 있는 생명으로만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소유하였듯이, 부활을 이룬 생명을 소유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도 찬란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 글을 쓰면서 몇 년전 스크랩해 두었던 신문의 조그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는 언젠가 우리 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시간에 오셔서 북한 탈출과 하나님을 의지하던 불굴의 신앙 간증으로 우리의 눈시울을 젖혔던 조창호 중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은 조창호식 부활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목: 조창호 씨 호적 부활

서초구청서 주민증 발급

‘돌아온 사자’ 조창호(64)씨가 호적을 되찾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지난 1951년 9월 10일 국방부로부터 전사처리돼 ‘이승의 사령’이 아니었던 조창호 씨는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격해 했다.

조창호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의해 ‘생자’로 ‘부활’된 것은 지난 4일. 지난 1961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망자’로 처리된 이후 33년만의 일이다. 큰누나 장숙(74) 씨는 “1951년 창호가 전사했다는 국방부의 정전 벽력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을 것이란 가늠한 기대 때문에 사망 신고를 10여년간 미루었다”며 “호적을 다시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장숙씨는 법원의 ‘부활’ 판결이 나자마자 종로구청으로 달려가 당일 호적을 복직시켰다. 조씨의 이름 석 자가 호적 맨 끝에 오른 것을 확인한 장숙씨는 호적을 들고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서초구청측도 신원조회 등 불가피한 절차만 거친 뒤에 8일 조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조선일보 1994년 12월 12일자)

이 기사에서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호 성도는 그의 부활(?),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매주일 쭉쭉 지켜지고 있는 주일의 모임은 부활의 열매들의 모임이요, 부활의 중인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란 부활의 순서를 기다리는 부활의 씨앗들의 모임이요, 부활의 중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장차 그 영원하신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열매들이 다같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과 감사의 찬양이 터지는 삶을 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6-20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삼천만 우리 민족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천만의 우리 동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의 1만 2천여 종족이 부활의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평**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봉우리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탄하고 평안한 상태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삶의 현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로 물들고 죄로 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쉬임없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기도는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어떤 재능도 실력도 능력도 필

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안고 사는 삶의 현장을 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저자인 케더린 마살은 평범한 가정 주부로서 결혼과 함께 닦아온 엄청난 삶의 시련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

를 심어줄 것입니다.

본래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경건 소재자인 가이드 포스트(Guided Posts)지에 순간순간 간증으로 실었던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이나 기도에 관한 학문적인 주제들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로 살아가는 진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황을 깊이 있게 전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받고 기도 없이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픔과 위기와 삶의 모든 막마름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기도의 맛을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 소개

## 기도에의 모험

(케더린 마살 저, 양은순 역, 생명의 말씀사)

한 근 수

(목사, 고동부 지도)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기도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를 구해야 하는 상태가 있는가? 둘째는 우리가 스스로 그 필요를 해결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기도의 조건은 만족된다고 말합니다.



면 안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 어떻게 극복해나갔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케더린의 진솔한 삶의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깊이를 더해 주며, 또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





## 토막소식

▶ 유치부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 초등1부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심어 주기 위해 성극을 준비하여 공연한다.

▶ 초등4부의 학생들은 오늘 각자 집에서 부활절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글짓기, 붓글씨 쓰기를 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초등5부는 부활절 예쁜 달걀콘테스트를 한다.

▶ 중등1부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중심으로 반별암송대회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주제로 하여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 중등3부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찬양과 성극, 반별로 달걀꾸미기와 부활의 기쁨을 의상으로 잘 표현한 베스트 드레서를 뽑는 순서들이 복지관 지하2층 마르다홀에서 행해질 예정이다.

▶ 사랑부에서는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으로 봉사하실 집사님을 모집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랑부 교사실이나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 청년2부는 오늘 낮 12시 30분에

교육관 414호에서 김경진 목사를 모시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활신앙'이라는 특강을 실시한다.

▶ 아멘찬양대의 지휘자 이수철 집사는 4월 9일(화) 저녁 7시 30분에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세바스티안실내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지휘를 한다.

▶ 홍릉 김은태 선교사가 4월 8일(월) 저녁 7시 30분 5일간의 일정으로 일시 귀국한다. 김선교사는 12일(금) 오전 11시 30분 출국한다.

### ◀ 직원모집 ▶

충현교회에서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일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여상을 졸업한 23세 미만의 사람

#### 2.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 3. 제출기한

4월 14일(주일)

#### 4. 서류제출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교 402)

### ◀ 우리 부서 소개 ▶

## 봄을 맞이하는 초등1부

이영숙

(초등1부 교사)

계곡의 살얼음 밑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봄이 바로 빨아래까지 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사색히 고개 숙이고, 찬 바람 속에서도 한 줄기 따뜻한 봄 내음이 상큼하게 뽀뽀합니다. 이렇게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새봄에 우리 초등1부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환경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심하면 우울, 불안 증세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일 것 같지만 혼자 고민하고 친구들과 갈등도 하며 삶의 도화지에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성장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초등1부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1부에서는 학생들이 넓은 세상, 처음 맞이하는 학교 생활에서 오는 두려움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인도하심으로 평안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설교

를 해주시는 손미희 전도사님의 낭랑한 말씀은 꿀처럼 달게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젖어들어 '예수님 닮아 자라나는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8시 50분에 교육관 307호로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부는 찬송, 기도, 헌금, 설교 등의 예배가 있고 2부는 생일 축하, 새 친구 환영, 전도 어린이 시상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는 각 반 별로 흠뻑져 담임선생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배워 나갑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키가 자라고 몸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저절로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천국 시민의 성품은 어린이와 같은 성품이어야 한다 하시며 "그 어린이들을 알고 제회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는 말씀처럼 순박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믿음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초등1부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개원

### 충현복지재단, 장애인들의 생활 훈련이 목적

사 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창인 원로목사)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개원하고 이홍성 목사, 윤명식 장로와 교사, 훈련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렸다(사진).

개원예배에서 충현복지재단 상임이사인 윤명식 장로는 "개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교회와 사회 단체에 모범이 되어 장애인과 정상인이 하나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고, 시편 127편 1-5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이홍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주신 이 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제2, 제3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건립될 수 있기를 축복"하였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기능 훈련과 지역사회 거주를 통해 자립의 기틀을 다져 독립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가사실습, 장보기,

비디오나 TV를 통한 시청각 교육, 취미 생활 활동, 집단 토의나 레크레이션 같은 집단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교육을 받는다. 이번에 개원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강남구 역삼동 655-7번지 401호에 위치한, 방 3개, 욕실, 부엌이 딸린 22평 규모의 아담한 집으로,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 충현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 집에는 현재 충현복지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한 달에 네 명씩 입소)과 교사 한 명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생활 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을 맡겨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깨닫고 앞길을 주님 뜻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시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봄의 햇살처럼 따뜻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은 결코 두려움 없는 밝고 환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1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재순처럼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생동하는 봄날에 믿음도 새색을 띄워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시

### 진정

### 예수이여

한 인간의 몸 나무에 달아  
어두운 세상 불 밝혀 놓고  
십자가 펼쳐 우주를 품안은  
영원히 빛나는 사랑  
당신은 어린양 예수이여

삼십삼년 살고 닦은  
아까운 젊음 그 이름 예수  
십자가 흘린 보혈 꽃으로 활짝 피고  
하늘 드높이 들리워진  
당신은 독생자 예수이여

번갯불 천둥 소나기에  
전도의 하나님  
보라! 아찔한 푸른 십자가  
예수의 장한 모습  
당신은 청년 예수이여

심장을 두드리는 맥박소리  
하늘 땅 흔들고  
온누리에 떨치는 한 인간의 운명  
다 이루었다 한 때  
당신은 신의 아들 진정 예수이여

김은섭(집사, 초등3부 교사)